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인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교훈을 알아 그의 죽으심과 합치되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3:10***

신성한 권위에 대한 묵인의 개념에는 받아들여진 표준이나 패턴에 복종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성한 가족과 인류 가운데서 구속받은 '작은 무리'가 궁극적으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눅 12:32, 로마서 2:7) 이 클래스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아신 자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29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귀한 보상에 이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성경의 증언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되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1,2

충성도

충성심은 묵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적인 동정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충실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신자들은 세상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의의 원칙에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6)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현재의 악한 세상"과 연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4) 또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종종 빛의 천사로 나타나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14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3:20) 위대한 대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는 태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은 자발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를 아는 법을 배웠으며,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대의의 완전성에 대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왕과 선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해야 하며, 그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쾌하게 할 생각에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용기

용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필수적인 자질이지만,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실 은혜와 힘을 구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 잠언 3:5,6)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의 선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힘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3,4

좋은 군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1,3) 우리가 봉사하는 대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자유의지로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구원의 대장과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10) 크리스천 군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완전해서 우리가 왜 특정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28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 계시된 성령의 영향력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에 충실히 적용될 때 의로운 성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3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더 '변화'되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로마서 12:2, 야고보서 1:18, 요한복음 17:17)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신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이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4:12, 고린도전서 4:2)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반드시 이끌려서는 안 되며, 옛 고귀한 베레아인들처럼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모든 것을 증명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1; 사도행전 17:11

안디옥의 편견

그리스도인 교제 안에서 생각이나 행동의 일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거나 동료 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지 지나치게 고려할 때,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21절에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사도로 여겼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던 개종자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 한 무리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과 그곳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해질까 봐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편파성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34) 따라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이 "믿음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로마서 4:13) 바울은 적절하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희생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지적함으로써 베드로의 위선을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으므로 이방인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14-21

베드로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의 기둥인 사람이 일부 유대인 형제들이 가진 부적절한 신앙의 영향에 부당하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묵인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개별 교회, 즉 교회는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양육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매우 특별한 마련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의 사실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정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2:28,29; 7:5,6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구절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성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 그릇에 새 피조물이라는 보물을 담고 있고 주님을 섬기려는 열망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형제애의 다른 지체와 다르게 자신을 표현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4:7)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보지 말고,
56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처럼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보석들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도록 양심적으로 노력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무엘상 16:7; 고린도후서 10:7

기독교 자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진리의 항목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성구가 실제로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고 믿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실 때까지 형제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의

정확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경이 선언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완전히 설득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5

신약 초기부터 주님의 백성의 회중이 여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임의 설립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딤후 3:1-7; 딤후 1:5-9; 베드로전서 5:1-3) 장로든 집사든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투표를 통해 봉사 직책에 선출됩니다. 따라서 회중을 더 높은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습니다. 특정 정책이나 관행에 관한 당회의 판단이 장로의 판단과 다른 경우, 장로는 근본적인 교리, 도덕적 문제 또는 양심 위반이 아닌 교회 선호도의 문제인 경우 당회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신뢰하는 장로를 선출하는 책임에 따라 주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특정 개인이 선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신실한

58

새벽

태도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로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전체 그룹의 의무일 것입니다.

파티 정신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 간에 경쟁심이나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13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호소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생각과 목적이 일치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클로이의 집안 식구들 중 일부가 여러분의 다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분파로 나뉘었나요? 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분열은 특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기회를 방해하려는 압력이 가해진다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가 필요한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로 인정하는 한, 종파적 정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사소한 차이로 인해 일부 형제가 우리의 교제에 합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몸의 연합 교리에 반하는 정신을 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은 우리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인이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편 133:1-3; 에베소서 4:1-3,15,16; 빌립보서 2:3

아이돌

앞서 언급한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사역에서 우리 리더의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9:10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그는 말하기를, 아니,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도 여러분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예언의 본질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특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한 지체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충실한 노력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5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같은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며 영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헛된 관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18)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적절한 정신이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한 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압력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관련하여, 우리 육신에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2,3). 죄가 아닌 문화, 레크리에이션, 취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은 육체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율법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정 금지 사항과 달리 신약 성경에는 신자들의 행위와 관련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사랑의 법과 의의 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중 누구도 서로를 위해 일련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추구가 육체를 만족시키는지, 희생과 헌신적인 삶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지침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특정 활동이 교화하고 고상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최대한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좋은 일이라도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우리의 거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청지기로 받은 재정적 자원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련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종종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백성도 집의 외관과 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수용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재 거처를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 노선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참여나 활동이 우리가 맺은 희생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우리 중 일부는 육체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우 유리한 직업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일정이나 먼 곳에서 일해야 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인 결과는 영적인 교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특정 모임에 불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묵인하는 데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가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빌립을 사막으로 보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때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26-38) 물론 이 선상에서 각자의 경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노선을 따라 딱딱하고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8) 이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답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단계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데 있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고려하세요.

1.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주 연구합니다. (딤후 2:15)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므로,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우리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신성한 원리를 숙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경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느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우선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친교와 공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교회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권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25)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르게 행사한다면 서로의 공헌이 상호 영적 힘과 교화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종류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동의 공급"을 받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계 교우들 및 형제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영을 경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16

3. 희생의 삶을 살라. 자기 부인의 정도가 클수록 원수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탐욕의 영에 덜

노출되어 하나님의 뜻을 묵인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성령의 영향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걷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요한일서 2:16

4. 자주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 것을 발견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 특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은혜의 보좌에 가서 정화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우 민감하다면,

우리가 어떤 무분별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기도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의 종도
고의적 인 죄에서 지켜 주시고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흠이없고 큰 범죄에서
무죄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3,14

우리가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명철과 가르침을 주는
마음이 있나이다." 시편 111:10